

아세아제지, 청원공장 화재 사고

4월9일 폐기물 창고에서 발화 ... 건물 내부 모두 태우고 진화

4월9일 오후 6시29분께 세종시 부강면 아세아제지 청원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샌드위치채널 구조의 폐기물 창고에서 치솟은 불길은 격벽으로 분리된 다른 창고로도 옮겨붙어 창고 건물 내부 3166평방미터 등을 모두 태웠고 인접한 보일러실도 외벽이 그을렸다.

신고자는 “종이 공장에서 까만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세종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소방관 185명이 화학차와 펌프차, 1만리터들이 물탱크자동차 등 25대의 장비를 동원해 긴급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잔불정리를 마치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세아제지는 골판지 원지, 크라프트지, 석고보드 원지 등 48만톤의 산업용지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청원 공장은 1989년 가동을 시작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0>